



이탈리아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 관리 정책 효과

전용식 연구위원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보험료는 하락하고 있지만 발생손해액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장기간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반면 이탈리아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원인으로 자동차 보험료는 하락하고 있지만 보험영업이익은 2012년부터 흑자를 기록함. 보험영업이익 흑자의 원인은 발생손해액 감소인데, 2012년 보험 사기 억제를 위한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가 발생손해액 감소에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됨.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도 보험료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발생손해액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보험영업이익 적자는 확대될 수 있어 보험금 누수를 중심으로 발생손해액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최근 국내 자동차보험 보험료는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반해 발생손해액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어 보험영업이익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2017년 1/4분기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자동차 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1.93% 상승하였으나 2018년 1/4분기 1.12%, 2/4분기에는 1.15% 하락함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자동차보험료 증가율은 평균 3.0%,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자동차보험료 증가율은 평균 0.20%를 기록함
 -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하락, 마일리지 할인 확대, 온라인 판매 등으로 인한 경쟁 심화가 자동차 보험료 하락에 영향을 미침
- 발생손해액은 2018년 상반기 6조 1,405억 원으로 2017년 상반기 5조 7,929억 원에 비해 6% 증가하여 보험영업손익은 116억 원 적자를 기록함¹⁾
 - 2018년 2/4분기 보험영업손익은 손해율 개선으로 367억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1/4분기 적자(483억 원)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손해액 증가율은 평균 8.7%,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평균 6.0% 증가함²⁾

1) 금융감독원(2018. 8. 10), 「2018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2)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자동차 보험료와 발생손해액 증가율은 전용식(2018. 7. 2), 「자동차보험 영업이익 적자전환의 원인과

■ 반면 이탈리아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원인으로 자동차 보험료는 하락하고 있지만 보험영업이익은 2012년부터 흑자를 기록함

- 이탈리아 자동차보험은 우리나라와 같이 의무보험이고, 1995년까지는 보험료 규제가 엄격했으나 1995년 EU 통합을 계기로 보험료 규제가 완화됨
 - 자동차보험은 제3자 배상책임(물적 및 인적 손해배상)보험과 차량 화재, 도난 등의 손해를 보장하는 기타 종합보험으로 구분됨
 - 보험료 규제로 인해 보험료 증가율이 손해액 증가율에 비례해서 결정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됨³⁾
 - 우리나라도 2002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자율화되었고 보험회사들의 경쟁이 심화됨
- 이탈리아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하락의 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자동차운행 대수 감소, 블랙박스 장착에 대한 보험료 할인, 마일리지 할인, 온라인 판매 등 경쟁 심화임⁴⁾
 - 인구 1,000명 당 자동차대수는 2008년 866대에서 2013년 856대로 연평균 1.15% 감소함
 -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는 2013년 5.6%, 2014년 7.5%, 2015년 7.7% 하락(전년 대비)하였고 2016년에는 5.9% 하락함

■ 2012년 보험영업이익 규모는 14억 유로 내외에서 2016년 4억 6,100만 유로로 감소하였으나 흑자가 지속됨

-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는 2009년 169억 9,400만 유로에서 2016년 135억 2,500만 유로로 감소하였고, 기타 종합보험의 경우 31억 3,200만 유로에서 26억 3,400만 유로로 감소함
- 배상책임보험의 발생손해액은 2009년 151억 1,060만 유로에서 2016년 104억 2,200만 유로로 감소하였고, 기타종합보험의 경우 21억 3,100만 유로에서 14억 6,300만 유로로 감소함
 - 사업비는 기타 종합보험의 경우 8억 3,000만 유로에서 8억 400만 유로로,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32억 8백만 유로에서 29억 2백만 유로로 감소함
- 배상책임보험 보험영업이익은 2009년 15억 8,300만 유로 적자에서 2013년 18억 5,700만 유로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흑자규모는 2016년 1억 9,300만 유로로 감소함
 - 기타 종합보험의 보험영업이익은 2009년 1억 4,900만 유로에서 2012년 3억 6,000만 유로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2억 6,800만 유로로 감소함

전망], 『KiRi 리포트』 참조

3) Heikes, Andrew(2006), "The Pricing Effects of European Union Insurance: Liberalization on Italian Motor Insurance", *Honors Projects. Paper 10*, Illinois Wesleyan University

4) PwC(2017), The Italian Insurance Market

〈표 1〉 이탈리아 자동차보험 주요 지표

(단위: 백만 유로)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책임 보험	원수보험료	16,994	16,913	17,794	17,576	16,236	15,211	14,218	13,525
	증가율(%)	-3.6	4.4	5.2	-1.2	-7.0	-6.5	-6.5	-5.6
	발생손해액	15,106	14,467	14,791	13,110	11,563	10,818	10,421	10,422
	사업비	3,208	3,116	3,236	3,233	3,167	3,187	3,060	2,902
	보험영업이익	-1,583	-1,221	-735	1,084	1,857	1,410	842	193
	손해보험 비중	46.3	47.5	48.9	49.6	48.3	46.4	44.4	42.3
기타 종합 보험	원수보험료	3,132	2,950	2,891	2,648	2,413	2,387	2,455	2,634
	증가율(%)	-2.4	-1.3	-2.0	-8.4	-8.6	-1.1	2.9	6.5
	발생손해액	2,131	1,857	1,812	1,630	1,654	1,459	1,396	1,463
	사업비	830	781	763	703	660	692	733	804
	보험영업이익	149	296	299	360	154	238	261	268
	손해보험 비중	8.5	8.3	8.0	7.5	7.2	7.3	7.7	8.2

자료: 이탈리아 보험협회(2017), 보험현황

■ 보험영업이익 흑자가 지속되는 원인은 자동차 보험료 하락과 더불어 발생손해액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데, 발생손해액은 경상환자에 대한 인적 손해 보험금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인적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배상책임보험 보험금 비중은 63.5%(경상환자 21.4%, 중상해 환자 42.1%)이고 물적 손해 비중은 36.6%임
- 책임보험과 기타종합보험의 발생손해액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5.2% 감소하였는데 유가의 영향과 인적 손해 사고빈도(보험금 청구 건수)와 평균 보험금 감소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사고빈도의 감소가 원인임
 - 2013년부터는 인적 손해 사고빈도의 감소와 평균 보험금 증가율 둔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임
- 인적 손해가 초래된 사고빈도와 사고심도(사고 1건당 보험금) 감소가 발생손해액 감소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침
 - 인적 손해 사고빈도는 1.7%에서 0.99%로 감소하였고 특히 경상사고 발생 빈도의 경우 연평균 7.51%, 평균 보험금도 6,037유로에서 5,605유로로 연평균 1.06% 감소함
 - 중상해 사고의 경우 사고빈도는 감소하였으나 평균 보험금이 15만 5,484유로에서 20만 2,610유로로 증가함
 - 이탈리아 자동차보험에서 경상 및 중·상해는 후유장애 등급으로 구분됨

〈표 2〉 사고빈도(보험금 청구 건수)와 평균 보험금

(단위: 유로,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사 고 빈 도 (%)	사고빈도	7.77	7.36	6.53	5.87	5.65	5.48	5.55	5.65
	물적 손해	6.07	5.70	5.07	4.69	4.57	4.47	4.57	4.66
	인적 손해	1.70	1.67	1.46	1.18	1.07	1.01	0.98	0.99
	경상 환자 발생사고	1.627	1.602	1.401	1.121	1.016	0.963	0.932	0.942
	중상해 환자 발생사고	0.070	0.067	0.062	0.059	0.057	0.052	0.051	0.051
	사고건수 증가율	0.5	-5.2	-11.3	-10.1	-3.8	-2.9	1.2	1.8
평 균 보 험 금	물적 손해	1,725	1,716	1,803	1,899	1,883	1,894	1,908	1,923
	(증가율)	-2.7	-0.5	5.0	5.3	-0.8	0.6	0.7	0.8
	인적 손해	11,694	12,052	13,155	14,804	15,986	16,150	16,389	15,785
	(증가율)	-1.1	3.1	9.2	12.5	8.0	1.0	1.5	-3.7
	경상 환자	6,037	6,022	6,135	5,951	5,756	5,668	5,508	5,605
	중상해 환자	155,487	166,750	179,891	191,379	198,045	210,061	216,797	202,610
	평균 보험금	3,903	4,057	4,345	4,495	4,564	4,532	4,467	4,374
	(증가율)	-0.3	4.0	7.1	3.5	1.5	-0.7	-1.5	-2.1

자료: 이탈리아 보험협회(2017), 보험현황

■ 경상 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감소는 보험사기 억제에 위한 2012년 법제정의 효과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탈리아 법률 Law 27/2012는 경상환자들의 도덕적 해이(혹은 보험사기, Speculative Claims)를 줄이기 위해서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 조건을 강화함
- 경상환자가 발생하는 사고빈도(보험금 청구 건수)는 2011년 1.401%에서 2013년 1.016%로 27% 감소하였으나 물적 손해만 발생하는 사고빈도는 5.07%에서 4.57%로 2년간 5.06% 감소에 그쳐 법 개정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보임

■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도 보험료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발생손해액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보험영업이익 적자도 확대될 수 있어 보험금 누수를 중심으로 발생손해액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온라인 판매 확대, 블랙박스 장착, 마일리지 할인 등 보험료 할인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나이롱 환자 등 경상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지속되고 있음
 -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17년 3,208억 원이며 운전자 바뀌치기, 사고피해 과장, 병원의 과장 청구 등의 규모는 987억 원에 이릅니다) [kiri](#)

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4. 17), “허위 과잉 치료관련 손해보험 사기 크게 증가”